

NEWS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광산구·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1면 ‘복구 서방천’서 계속

또 서방천 하부 입체 하수로를 신설, 광주천 도심도 지하방수로와 연계해 서방천의 수위 저감을 도모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전국동 내 수곡천에 대해서도 교량을 다시 짓고 수문 일체형 펌프를 만드는가 하면, 농어촌공사에 용천전 일대 농배수로 개선·기존 펌프장 증설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월출자구에 대해서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보고회에서는 침수 예방대책과 함께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37종의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복구에 총력을 기하겠다”며 “침수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안전한 복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면 ‘5극 3특 전략’서 계속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중점 반영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공공주도로 이끌어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정부의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전남이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제도약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의 불합리한 요금과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송역 우회에 따른 추가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해온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직선 신선 개설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 특히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이 도민의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고용 악화 전에 정부 지원 선제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용자 등 확대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광산구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광주 광산구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대우위나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수시는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경기 불

황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보다 앞서 노동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되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후에야 지정할 수 있는 탓에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피보험자 증감률 전국 대비 5%p 이상 감소,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

청자 20% 이상 증가, 사업장 수 5% 이상 감소 등 4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해야 하는데,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이를 모두 미충족했다.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

월이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이번 지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생활 안정 자금 용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노동자 대상 생계비 용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 취임 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신속히 마련한 것처럼,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호응감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김두산에틸리티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재원 현대차 부회장. 한민

전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804억 확정

주민생활 안정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조기 투입

전남도는 지난달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804억원의 복구비가 반영된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전남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광양 백운산 601mm, 담양 봉산 540.5mm, 구례 성삼재 516mm, 나주 금천 508.5mm 등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고, 사유시설 429억원, 공공시설 616억원 등 총 104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담양 1230억원, 나주 581억원, 함평 201억원 등 총 2804억원의 복구비가 반영됐다.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총 477억원의 국비 추가지원액이 확정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주택, 상가, 농작물 등 피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해서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도 추가 확정됐다. 침수주택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350만원에 더해 3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농·산림작물의 대파대와 가축·수산

물의 입식비는 기존 50%에서 100%로 지원율이 향상되고, 농·축·산림·수산시설 복구비 (35%→45%)와 농기계 피해 복구비 (35%→50%)도 상향 지원된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농어업 분야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41억원을 성립 전 예산 사용과 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수해 발생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에 주력하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군 공항 주변 건축시 높이 제한 완화··시행령 개정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기초를 반영,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뜻한다.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어로수퍼책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